

‘동기호테’ 서양 이야기?... 아니라고, 우리소리 ‘창’이라고

컬처 & 피플

국악인 윤진철



“17세기, 스페인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를 태운 법선이 춘삼월 폭풍과 함께 제주도에 좌초한다. 돈키호테는 낯선 조선 땅에서 제주 기생 애랑을 만나고 그녀를 공주 ‘돌시네아’로 착각하게 된다. 제주 목사 김경에게 납치된 애랑을 구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면서 생기는 좌충우돌 돈키호테의 모험이 시작된다...”

오는 9월 4~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질 광주시립국극단 정기공연 ‘동기호테’ 이야기다. 돈키호테 역을 맡은 윤진철(51) 시립국극단 예술감독을 최근 만났다.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조선시대대로 불러들인 장극 ‘동기호테(傳奇虎太)’는 ‘어리석고 기괴하나 그 안에 담긴 용기는 태산과 같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궁가’, ‘심청가’ 등 전통 판소리와 임방울, 안중근 등 우리 역사적 인물을 무대에 올리는 시립국극단으로서의 파격적인 주제다.

“‘동기호테’는 한국적인 뮤지컬입니다. 과거에도 창작 창극을 많이 시도했지만 대본을 제외하고 담아내는 건 전통에 가까웠지요. 지난 3년간 다른 작품을 통해 시도했던 창작 창극을 기반으로 이번 작품에 모두 담아봤습니다.”

당초 지난 5월 중반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던 ‘동기호테’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으로 정기공연이 연기됐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대다수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지만 공연 스토리가 세월호 참사를 닮아 있어 윤 감독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극속 돈키호테가 바다를 향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좌초돼 가리앉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자체가 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배 안에서는 ‘상황을 관에 알리지’는 이들과 ‘관에 알리면 뭐

광주시립국극단 예술감독

판소리 대중화 위해

파격적 주제로 관객 찾아가

하나, 그놈들은 기생 끼고 술판이나 벌이고 있을텐데’라며 말리는 이들의 대화가 오갑니다.”

올해도 4년째 광주시립국극단을 이끌고 있는 윤 감독은 천직이 국악인이다. ‘소리의 고장’ 목포 출신답게 어려서부터 노래부르는 걸 누구보다 좋아했다.

“국악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거예요. 음악이 너무 좋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지요. 살던 동네에 국악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종종 건물아래에 한참 서서 들곤 했는데, 어느날 선생님 손에 이끌려 국악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장르에 대한 구분 없이 음악 자체가 좋다는 윤 감독은 국악을 가장 먼저 접했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스편지처럼 받아들였다. 배우는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다고 회상했다.

“불과 몇십 년 전만해도 대중음악은 국악이었어요.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국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쉬웠죠. 물론 판소리에 맞는 목소리를 갖고 소질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국악이 활성화 되고 학교교육이나 현장교육에서의 가르침이 많아진다면 지금이라도 국악의 길을 가는 이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악의 대중화를 누구보다도 바란다는 윤 감독. 그가 광주시립국극단의 예술감독이 된 것도 이같은 그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

을까. 2011년 제5대 윤진철 예술감독의 임명은 시립국극단 단원들과 지역 국악인들을 놀라게 했다. 60·70대 선배들이 맡아왔던 자리를 당시 40대였던 윤 감독이 선배들을 제치고 당당히 꿰찼기 때문이었다. 젊은 피의 수혈은 당연 ‘국악의 대중화’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내용도 좋고 이미지 전담도 좋지만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변함없는 지론이다. 판소리의 무거운 이미지를 덜어내고자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다. 전통 판소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다.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전통 판소리가 허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서양의 스토리를 가져와 국악가요나 서양장법을 도입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소리인 ‘창’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재미있고 발랄하지만, 판소리의 ‘눈’ 대목들은 살려내면서 극을 끌어가니, 오히려 더 돋보이는 효과를 봅니다. ‘판소리의 창’이라는 게, 국악이라는 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국악의 대중화와 제자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윤 감독은 은퇴이후에는 소리꾼이 아닌 또 다른 예인의 삶을 살 모양이다. 소리꾼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무악은 물론 시서화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림쟁이이기도 한 그는 소리를 하다 흥이 나면 종종 그림을 그려왔다.

“제 나이 예순다섯이 되면 소리꾼의 길에서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동안 미뤘었던 그림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판소리 후학을 양성하는 일도 계속 할 수 없겠지요. 어찌보면 은퇴후가 더 바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5월 대구 근대골목 취재차 대구 중구청을 방문한 기자는 인상적인 명함 한 장을 받았다. ‘문화관광분야 달인’이라는 큰 글자가 적힌 오성희 주무관(대구 중구 문화관광과)의 명함이었다. 오 주무관은 근대골목에서 문화를 걸어 올린 ‘골목투어 달인’이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골목 해설사 교재 발간, 골목투어 강의, 골목투어 인터넷 카페 등 근대골목을 부활시킨 공로로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달인’이란 영예를 얻었다. 통상 1~2년마다 담당업무가 바뀌는 공무원들의 인사관행에 비추어 볼 때 5년 근속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 주

필요로 한다. 문화마인드나 식견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문화에 대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행정에 대한 마인드는 상당히 ‘비문화적’이다. 실제로 광주시에는 지난 2005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과 시 문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문화체육정책실이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 교체와 낮은 전문성으로 굼직한 문화이슈들이 얽힐 때 마다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역대 문화정책실장들의 재임 기간이 평균 6개

문화부시장이 필요한 이유

무관의 현장경험과 중구청의 지원 덕분에 근대골목투어는 지난해 2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대구 출장을 다녀온 다음날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올 1월 광주시 정기 인사로 조직위의 일부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긴 탓인지 새로운 인물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담당자들이 교체되다 보니 업무 파악이 어렵게 될 것 같았다. 컬처비시아드(문화 U대회)를 내건 슬로건이 무색하게 문화사업부서의 관계자들은 ‘신인’들이 유독 많았다.

지난해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외국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 역시 U대회와는 거리가 먼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공무원 인사 관행이라고 하지만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아쉬웠다.

일반적으로 한 조직의 문화업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한다. 문화마인드나 식견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문화에 대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행정에 대한 마인드는 상당히 ‘비문화적’이다. 실제로 광주시에는 지난 2005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과 시 문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문화체육정책실이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 교체와 낮은 전문성으로 굼직한 문화이슈들이 얽힐 때 마다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역대 문화정책실장들의 재임 기간이 평균 6개

월~1년에 불과한 것은 ‘문화’에 대한 광주시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 지 잘 말해준다.

최근 광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화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올해 스타트를 끊은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성공 여부에 따라 광주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 메가 이벤트를 탄력을 받도록 지역 문화정책들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문화컨트론타워가 시급한 이유다.

지난 18일 민선 6기 시민시대를 맞아 광주시가 민관합동정책 모델을 찾기 위해 주최한 ‘시민 아고라 500’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원탁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문화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문화부시장과 같은 문화콘트론타워를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를 꿈꾸는 광주에게 문화부시장 도입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정책이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여성재단, 양성평등 기반 구축 위한 포럼

광주여성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제18층 대강의실에서 2014 양성평등기반 구축을 위한 1차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 지역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안경주(전남대 인류학과 감사)씨가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프레임으로 본 광주 지역 여성 정책’, 노재영(광주여성

재단 성별 영향 분석평가 센터장)씨가 ‘광주 지역 성 주류화 추진 담당자 의식 및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다. 사회는 박종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또 전진숙(광주시 의원), 고선화(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 담당)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62-670-0500. /김미은기자 mekim@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